

‘幾’는 의문대사인가? 수사인가?*

고영란** · 박은석***

〈目 次〉

1. 들어가며
2. ‘幾’의 품사에 대한 학계의 인식
3. ‘幾’의 발전 과정과 양상
4. ‘幾’의 의미와 용법
5. ‘幾’의 품사에 관하여
6. 나오며

1. 들어가며

‘幾’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로, 1) 중국어 입문이나 초급 단계의 중국어 교재에서 빠짐없이 출현한다. 또 新HSK 1급에서 다루어질 정도의 기초 어휘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幾’는 의문문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데, 가족 수를 묻는 ‘你家有幾口人?’ 이라든지 날짜를 묻는 ‘今天幾月幾號?’와 같은 문장이 그러

* 본 논문의 심사를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주저자,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강사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漢韓大辭典(4)』, 『漢字圖解字典』 등의 자료에 의하면 ‘幾’는 ‘幾(ji)’와 ‘幾(ji)’로 나뉜다. 이 중 ‘幾(ji)’는 상고중국어에서 명사, 부사, 형용사 등의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現代漢語詞典(第7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대중국어에서는 문어에 쓰이는 부사의 용법만 남아 있고 나머지 용법은 소실되었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幾(ji)’는 상고중국어부터 수/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였고 지금까지도 그 의미와 용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의 논의 대상은 『現代漢語詞典(第7版)』 상에 있는 ‘幾(ji)’로 한정하도록 하며, 이하 ‘幾’의 한어병음 표기는 생략하도록 한다.

한 예가 된다.²⁾ 그런데 ‘幾’는 평서문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쓰인다. 예를 들면 평서문인 ‘上午有幾個人來過這兒。’에서 ‘幾個人’은 의문문인 ‘你家有幾口人?’에서 가족 수를 물을 때 쓰는 ‘幾口人’과 동일한 어순과 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幾’는 의문문과 평서문에서 모두 ‘幾+양사+명사’순으로 결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幾’는 과연 의문대사인가? 수사인가? ‘幾’는 문미에 의문조사 ‘嗎’를 쓰지 않은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의문대사처럼 보이고, 평서문에서든 의문문에서든 ‘수량구’를 고정 형식으로 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幾’는 중국어 수사와 동일한 분포를 띠고 있어서 수사처럼 보인다.

다수의 중국어 문법서와 중국어 사전, 그리고 초급중국어 교재 속 ‘幾’의 품사 표기를 보면 ‘幾’가 동일하게 사용된 ‘수량구’에 대하여 어떤 책에서는 ‘수사’로, 어떤 책에서는 ‘의문대사’로, 또 다른 책에서는 ‘수사 및 의문대사’로 서로 다르게 명시하고 있지만 품사 설정을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중국어 문법서 및 중국어 사전, 중국어 교재에서 ‘幾’의 품사에 대한 인식과 품사 표기가 서로 엇갈리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포착하고 중국어 ‘幾’의 품사를 정확히 규정하며, 그 규정 근거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밝히려는 노력이 국내외 중국어학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幾’의 품사에 관한 중국어학계의 인식과 중국어 사전, 초급중국어 교재에서의 품사 표기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幾’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幾’의 품사 설정을 위한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네이버 사전에서 ‘幾’를 검색하면 초중고 수준별로 상당한 양의 예문을 볼 수 있다. 전체 70,694 문장 중에서 초급 10문장, 중급 13문장, 고급 6,567문장이 검색이 되며, ‘幾’가 수량을 나타내는 ‘몇’의 의미로 사용된 용법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초급에서 ‘幾’가 쓰인 의문문은 8문장, 중급에서는 8문장이었으며, 고급 수준의 중국어는 수치화하지는 않았으나 평서문에 쓰인 예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幾’가 초·중급 단계에서는 의문문 형식으로 자주 출현하는 반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평서문을 통해 접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 ‘幾’의 품사에 대한 학계의 인식

1) 사전에 표기된 ‘幾’의 품사와 의미

사전상의 뜻풀이는 대개 보편성을 띠며 규범적인 의미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사전을 통하여 어휘량을 늘리고 문법 지식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사전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어학계에서 권위 있는 『現代漢語詞典(第7版)』, 『現代漢語規範詞典(第3版)』, 『現代漢語八百詞(增訂版)』³⁾, 이 세 권의 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幾’의 의미와 품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표1. 사전에 표기된 ‘幾’의 품사와 의미

사전	품사	의미
『現漢』 (2016)	① 代詞 ② 數詞	① 詢問數目(估計數目不大大) 來了幾個人? 你能在家住幾天? ② 表示大於一而小於十的不定的數目 幾本書, 十幾歲, 幾百人
『現規』 (2010)	數詞	- 用來詢問數目的多少。 現在幾點了? 來了幾個人? - 表示二至九之間的不定的數目。 幾十年如一日。 - 在具體的上下文裏, 代替某個確定的數目。 屋裏只有老張、小王、大周和我幾個人。
『八百詞』 (1980)	數詞	- 詢問數目。幾所指的數限於二至九, 但可以用在‘十、百、千、萬、億’之前和‘十’之後。 三加二等於幾? 來了幾千人? - 表示不定數目。用法同上, 後面要有量詞。 咱們幾個一道去。一共只有十幾個人。 - 在具體的上下文中, 可以概括確定的數目。 商店門口有‘顧客之家’一個大字。

이상 사전풀이를 통해 보면 ‘幾’의 기본적인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3) 이하 『現代漢語詞典』은 『現漢』, 『現代漢語規範詞典』은 『現規』, 『現代漢語八百詞』는 『八百詞』로 약칭한다.

① 수량을 물을 때 사용한다. ② 1~10 사이의 부정량을 나타낸다. ③ 일정한 문맥 속에서 확정적 수를 대체하거나 개괄한다. '幾'의 품사는 세 권의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수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現漢』에서는 의문대사로도 보고 있다.

사전에 표기된 '幾'의 품사와 의미를 통해 관찰되는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幾'의 의미와 용법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따라 상이한 품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량을 물을 때 사용하는 '幾'를 『現漢』에서는 의문대사(풀이 ①), 『現規』에서는 수사로 처리하고 있다. '來了幾個人?'이라는 동일한 문장에 쓰인 '幾'의 품사를 각각 의문대사와 수사로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現漢』에서는 '幾'를 대사와 수사를 겸하고 있는 겹품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사전에 수록된 예만 가지고는 의문대사와 수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現漢』에서 제시한 예를 다시 보도록 하자.

대사 '幾' 來了幾個人? 你能在家住幾天?

수사 '幾' 幾本書, 十幾歲, 幾百人

상술한 예를 보면 『現漢』에서 '幾'를 의문대사와 수사로 설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의문대사 '幾'로 처리된 '幾個人', '幾天'과 수사 '幾'로 처리된 '幾本書', '十幾歲', '幾百人'은 모두 수량구의 형태를 취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양을 나타낸다. (의문)대사 '幾'의 경우 의문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외에 수사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찾을 수 없다.

사실 『現漢』에서는 『現漢(第6版)』이 출판되기 전까지 '幾'를 하나의 품사, 즉 수사로만 규정하였다. 그런데 『現漢(第5版)』(2005)까지 수사로만 표기되어 있던 '幾'가 『現漢(第6版)』(2012)에서 수사와 의문대사, 즉 겹품사 표기로 변화하였다(嶽海燕 2017). (해당 여부는 +/- 표시)

표2. 『現漢』에서의 '幾'에 대한 품사 표기의 변화

『現漢』	대사	수사
『現漢(第5版)』(2005)	-	+
『現漢(第6版)』(2012)	+	+
『現漢(第7版)』(2016)	+	+

그간 수사로만 여겨져 왔던 '幾'를 사전에서 수사와 의문대사를 겸하는 품사로 표기한 것은 '幾'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사전에 새로운 단어가 수록되거나 품사상의 변화가 반영되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어학계에서는 『現漢(第6版)』이 출판되기 이전부터 '幾'가 사용되는 환경이 두 가지 경우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초급중국어 교재 속 '幾'의 품사

'幾'는 초급중국어 전반부에서 학습하는 단어로, 초급중국어 교재에서 '幾'의 품사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1999년부터 최근 2019년까지 출판된 총 9권의 초급중국어 교재를 통해 '幾'의 품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幾'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원과 주제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교재는 출판일이 빠른 순으로 정렬하도록 한다.

표3. 초급중국어 교재 속 '幾'의 품사 표기

출간	서명	발행년도	품사	예문
한국	『중국어 마스터1』	2008	㉞ 몇	6과 你家有幾口人? 你兒子今年幾歲?
	『스마트 중국어1』	2010	㉞ 몇	5과 你家有幾口人?
	『NEW 스타일 중국어1』	2013	㉞ 몇	5과 你家有幾口人?
	『THE 중국어1』	2013	㉞ 몇	4과 你上幾年級?
	『집중중국어1』	2018	㉞ 몇	5과 你家有幾口人?
	『중국어의 신1』	2019	㉞ 몇	7과 你的生日是幾月幾號?

중국	『301구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상)』	1999	㉔ 몇	6과 你家有幾口人?
	『신공략 중국어(기초편)』	2000	㉕ 몇	8과 你住幾號樓? 幾位老師教你們?
	『신개념 중국어1』	2016	㉕ 몇	6과 你的生日是幾月幾號?

표3은 초급 수준의 중국어에서 가족 수, 생일, 나이, 학년을 묻는 의문문을 통해 학습자가 '幾'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幾'가 쓰이는 환경이 동일함에도 교재마다 서로 다른 품사로 명시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 수를 묻고 답하는 '你家有幾口人?' 단원을 예로 들자면, 『중국어 마스터1』, 『NEW 스타일 중국어1』, 『스마트 중국어1』에서는 '幾'를 수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중중국어1』, 『신개념 중국어1』에서는 의문대사로 처리하고 있다. 초급중국어 교재 속 '幾'의 품사 표기율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초급중국어 교재 속 '幾'의 품사 표기율

품 사	의문대사	수사
백분율	22%	78%

초급중국어 교재에서 '幾'를 수사로 보는 의견이 월등히 많은 것은 사전학계의 (표1 참고) 품사 표기를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집중중국어1』, 『신개념 중국어1』의 출판년도는 각각 2018년, 2016년으로, 그 이전에 출판된 교재에서 '幾'를 수사로 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두 권의 교재에서는 '幾'를 의문대사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幾'의 품사 표기가 2012년 『現漢(第6版)』을 기준으로 수사에서 수사·의문대사로 바뀐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2013년에 출판된 『NEW 스타일 중국어1』, 『THE 중국어1』에서 '幾'를 수사로 본 것은 『現漢(第6版)』(2012)이 출판된 시기와 비슷하여 의문문대사 '幾'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어의 신1』(2019)은 본고의 분석 대상 교재 중 가장 최근에 출판된 교재이나 '你的生日是幾月幾號?'와 같이 의문문에 사용된 '幾'를 수사로 보고 있다.

3) 문법학계에서 보는 ‘幾’의 품사

지금부터는 ‘幾’의 품사에 대한 문법학계의 견해를 전공 및 학술도서를 위주로 검토해 보고자 하며, 서명은 출판일이 빠른 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겠다.

표5. 문법학계에서 보는 ‘幾’의 품사

품사	서명	출판년도	지은이
수사	『中國現代語法』	1943	王力
	『現代漢語語法講話』	1961	丁聲樹
	『語法講義』	1982	朱德熙
의문대사	『표준중국어문법』	1981	Li & Thompson
	『現代漢語』	1993	北京大學中文系
	『實用對外漢語教學語法』	2006	陸慶賀
	『近代漢語指代詞』	2017	呂叔湘
의문대사 수사	『實用現代漢語語法』	2001	劉月華
	『漢語語法三百問』	2002	邢福義
	『現代漢語詞類研究』	2002	郭銳
	『漢語語法學』	2016	邢福義

2.1절-2.2절 사전 및 교재 분석을 통해 ‘幾’의 품사가 일관성 없이 표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공 및 학술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幾’의 품사에 대한 관점은 학자마다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中國現代語法』(1943/2014:270),⁴⁾ 『現代漢語語法講話』(1961:5), 『語法講義』(1982:45)에서는 ‘幾’를 수사의 범주에서만 간단하게 언급한 것과⁵⁾ 달리 『표준중국어문법』(1981:491), 『現代漢語』(2012/1993:284), 『實用對外漢語教學語法』(2006:67) 등 일부 문법서에서

4) 王力은 『中國現代語法』(1943/2014:19)에서 기수인 ‘一, 兩, 三, 半’을 수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幾’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中國現代語法』(1943/2014:270-271) 4장 기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幾’가 ‘대략의 수’, ‘적은 수’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그는 ‘幾’를 수사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趙元任은 『中國話的文法』(1980:292)에서 ‘幾件, 幾師, 幾縣, 幾下兒’처럼 ‘幾’가 양사와 결합하는 경우 ‘수량한정사(數量定詞)’로 분류하였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동사나 지시대사의 뒤에 놓인다고 하였다.

는 ‘幾’를 의문대사로 귀속시켰다. 또, 『實用現代漢語語法』(2001:101, 123), 『漢語語法三百問』(2001:97, 112), 『現現代漢語詞類研究』(2001:101, 123)에서는 ‘幾’를 의문대사와 수사, 이른바 겹품사로 보고 있다. 전공 및 학술도서 속 ‘幾’의 품사 표기율을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문법학계에서 보는 ‘幾’의 품사 표기율⁶⁾

품 사	수사	의문대사	의문대사·수사
백분율	22.22%	44.45%	33.33%

표6은 문법학계에서 ‘幾’를 의문대사로 보거나 적어도 의문대사로 인정하는 의견이 78%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⁷⁾ 특히 1980년대 초반까지는 ‘幾’가 수사로만 인식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幾’를 의문대사로 인식하는 학자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幾’를 의문대사·수사, 즉 겹품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전학계에서 ‘幾’를 공통적으로 수사로 보고, 겹품사로 보는 관점은 소수였던 것과 대비된다.

먼저 『中國現代語法』, 『現代漢語語法講話』, 『語法講義』에서는 수사의 범주에 ‘幾’를 포함시켰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幾’를 의문대사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도록 하자. 『표준중국어문법』(1981:495)에서는 ‘幾’가 의문문에서 수량구로 사용되는 경우 의문대사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你買了幾個鵝子?
거위를 몇 마리 샀어요?

『現代漢語』(2012/1993:284)에서는 의문대사 ‘幾’에 해당하는 예가 제시되지 않았고, 陸慶和(2006:67)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6) 刑福義(2002, 2016)의 두 권의 저서에서 ‘幾’를 겹품사로 보는 관점이 동일하므로 통계에 한 권만 반영하였다.

7) ‘幾’를 ‘적어도’ 의문대사라고 한 것은 그것이 수사와 의문대사, 즉 겹품사로 인식될 때를 의미한다.

- (2) 到中國以後, 塔旅遊也去過幾個地方。
중국에 온 이후 탑 여행도 몇 군데 다녀왔다.
- (3) 今天來了幾十個外國學生。
오늘 수십 명의 외국인 학생이 왔다.

陸慶和는 '幾'를 의문대사로 귀속시키면서도 다른 학자들과 달리 평서문에 사용된 '幾'까지 의문대사, 즉 하나의 품사로 보았다.

이어서 '幾'를 겹품사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劉月華(2001), 郭銳(2002)와 刑福義(2002), 刑福義(2016) 등이 있다. 劉月華(2001:101, 123)는 '幾'가 의문을 나타내지 않고 어림수를 나타내면 수사라고 주장하였다. 의문대사 '幾'와 수사 '幾'가 사용된 예를 차례로 보도록 하자.

- (4) 這個城市有幾座大橋?
이 도시에는 몇 개의 다리가 있습니까?
- (5) 一個星期有幾天?
일주일은 며칠이죠?

(劉月華 2001:97-98)

- (6) 你去拿幾本書來。
가서 책 몇 권 가지고 오세요.
- (7) 我還有幾個字沒寫完。
저는 아직 몇 글자를 쓰지 못했어요.

(劉月華 2001:123)

劉月華는 예(4)-(5)처럼 '幾'가 의문문에 사용되면 전부 의문대사로 간주했으며, 예(6)-(7)과 같이 '幾'가 수량구를 구성하여 '어림수'를 나타내면 수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림수를 나타내는 '幾'를 수사라고 한 그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4)-(5)에서 '幾座', '幾天' 형식으로 쓰인 '幾'를 의문대사라고 하였지만 여기서 '幾'도 그가 주장한 수사 '幾'처럼 어림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의문대사 '幾'와 수사 '幾'를 구분한 기준은 어림수라기보다 사실상 문장의 유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刑福義(2002)에서 '幾'를 의문대사라고 한 것도 '幾'가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他幾時走的?
그는 언제 갔니?
(9) 今兒是幾兒?
오늘은 며칠인가요?

(刑福義 2002:112)

그에 따르면 예(8)-(9)는 '幾'가 의문대사로 사용된 경우로, 대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수량 등의 어법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특수한 부류이다(刑福義 2002:107). 그러나 그는 수사 '幾'의 예는 따로 들지 않았다. 郭銳(2002:220, 239)는 '幾'의 품사가 수사와 수사성 대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기본적으로 '幾'를 수사(구체적으로는 "係數詞")로 보았지만 '幾'가 임시 지칭 기능 이라는 대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는 수사성 의문대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중국어학계에서 '幾'의 품사에 대한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幾'의 품사에 대한 내용은 중국어 문법서들에서 매우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고, 풍부한 예문을 통한 자세한 설명이나 주장은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幾'의 발전 과정과 양상

고대중국어에서 '幾'가 의문대사처럼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嶽海燕(2017)에서 제시되기는 했으나, 그는 '幾'가 의문문에 쓰여 왔다는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세부적인 분석은 미흡하였다. 본고는 '幾'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고한어 자전 및 사전 속 '幾'에 대한 풀이와 말뭉치 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幾'의 발전 과정과 양상을 좀 더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1) 고한어 자전 및 사전을 통한 '幾'의 분석

고한어 자전 및 사전에 수록된 예시로부터 우리는 '幾'에 관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幾'는 단독으로 문미에 놓여 의문의 기능을 하였다.

- (10) 『左轉·僖二十三年』: “夫有大功而無貴仕, 其人能靖者與, 有幾!”
큰 공을 세웠는데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新編古漢語詞典』 1996:232)
- (11) 『左轉·文公十七年』: “畏首畏尾, 身其餘幾?”
머리도 무서워하고 꼬리도 무서워하는데 몸만 남으면 얼마나 무섭겠는가? (『王力古漢語字典』 2000:272)

예(10)-(11)에서 '幾'는 의문대사 기능을 한다. 예(10)에서 '幾'는 '몇'으로, 예(11)에서는 '얼마나'로 해석이 된다.

둘째, 고대중국어에서 '幾'는 현대중국어 '幾', '多少', '多大', '多久' 등에 상응하는 의미로 넓게 통용되었다.

- (12) 『孟子·離婁上』: “子來幾日矣?”
당신은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13) 『左轉·文公十七年』: “靖諸內而賭諸外, 所獲幾幾?”
내분을 진정시키고 내기를 걸면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는가?
- (14) 『呂氏春秋·不侵』: “薛之地小大幾幾?”
설공의 땅은 크기가 얼마인가?
- (15) 『呂氏春秋·制樂』: “無幾幾, 病乃止。”
얼마 되지 않아 병이 나왔다.
(『古代漢語字典』 1998:272)

예(12)에서 '幾'는 며칠이나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고, 예(13)에서 '幾'는 '多少'의 의미로 쓰여 추상적인 양을 묻는 데 사용되었다. 예(14)에서는 면적/크기를 묻는 '多大'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예(15)에서는 시간의 양을 가리키는 '多久'로 해석이 된다. 이로 보아 고대중국어에서 '幾'는 구체적인 수량, 크기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양을 나타내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多少'는 현대중국어에서 '幾'와 대조적인 입장에서 종종 논의된다. CCL

말뭉치 자료를 통해 ‘多少’의 발전 양상을 살펴본 결과, ‘多少’는 春秋戰國 시기부터 관찰이 되기는 하나⁸⁾ 그 예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六朝 시기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唐 시기에는 의문문에 쓰인 예도 관찰되며 北宋에 이르러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이는 ‘多少’가 대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시기가 ‘幾’에 비하여 늦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근대에 이르러 ‘多X’형 어휘가 서서히 과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多久’는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多久’의 경우 근대중국어, 곧 明 시기 자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지만⁹⁾ 淸 시기 까지 쓰임이 그리 활발하지는 못했고 현대중국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漢代에 시작된 단어의 이음절화와¹⁰⁾ 양사의 발달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를 나타내는 단어들 사이에 기능 분화가 일어났음을 추측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즉, 단음절어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선진문헌에서 ‘幾’는 포괄적인 수량을 나타냈으나 ‘幾+양사’의 형식이 자리잡게 되면서 ‘幾’는 개체성 수량 구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었고, 가치나 시간, 크기와 같은 종류의 양을 나타낼 때에는 ‘多少’, ‘多久’, ‘多大’ 등이 ‘幾’를 대신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상고중국어에서 ‘幾’의 중첩형식이 존재했다. 예(13)-(15)에서 볼 수 있듯이 ‘幾幾’는 절이나 문장의 끝에 놓여 ‘얼마’라는 의미로 의문을 나타냈다.

2) 말뭉치를 통해 본 ‘幾’의 발전 양상

CCL 말뭉치 고대중국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선진문헌에서 ‘幾’는 주로 평서문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의문문에 사용된 예도 많이 관찰된다. 그리고 ‘幾’는 평서문에서 ‘불특정한 대강의 수/수량’을 나타내는데, 의문문에서도 역시 ‘불특정한 대강의 수/수량’의 의미를 담고 있다. ‘幾’의 통시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8) 春秋『道德經』第六十三章：“大小多少，報怨以德。” 크든 작든, 많은 적든, 원한은 덕(德)으로 갚아라.

9) 明『警世通言』卷四十：孽龍多久遁去，眞仙須急忙追趕，途路之上，且不要講古。 악한 용들이 얼마 동안 도망가니 진선이 급히 쫓아가야 하고 길에서 옛일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10) 董秀芳，『詞彙化：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商務印書館，2011:8 참조.

첫째, 상고중국어에서 ‘幾’는 단독으로 쓰여 시간의 양이나 사람/사물의 양을 나타냈으며 ‘얼마’ 또는 ‘몇’으로 해석이 되었다.

周

(16) 死喪無日，無幾相見。『類弁』

죽을 날은 예측이 어렵고 시간은 얼마 없어 만나기가 어렵다.

春秋

(17) 諸臣之委室而徒退者，將與幾人？『晉語』

신하들이 발을 내놓으려다가 공연히 물러난 자는 몇이나 되는가?

東漢

(18) 願聞天下凡有幾國？『太平經』

천하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듣기를 원합니까?

예(16)에서 ‘幾’는 ‘얼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예(17)에서 ‘幾’는 명사 ‘人(사람)’을 바로 수식하고 있다. 예(18)에서도 ‘幾’가 ‘國(나라)’를 직접 수식하고 있다. 이는 상고중국어에서 전형적인 수사에 속하는 1~10 사이의 수가 명사 앞에 바로 놓이던 어법 특징과 같다. 예컨대 『論語·述而』편에 나오는 구절 ‘三人行，必有我師。’는 수사인 ‘三’이 명사 ‘人’을 바로 수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幾’는 이음절 ‘幾何’의 형태로 문미에 놓여 수량을 나타내는 용언성 의문대사로 사용되기도 하고,¹¹⁾ ‘人’과 같은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였다.

春秋

(19) 若壅其口，其與能幾何？『國語·周語上』

백성들의 입을 억지로 막는다면 당신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戰國

(20) 鄉子弟力田爲人率者幾何人？『管子·問』

고향의 자제들이 밭에 힘써 경작하면, 남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

11) 李佐豊(2018:215)는 ‘幾何’는 용언성 의문대체사라고 하였다. 고대중국어에서 용언성 의문대체사로 사용되었던 단어는 ‘幾何’ 외에도 ‘奈何, 若何, 如何, 何如, 何若, 若之何, 如之何, 奈之何’가 있다.

람이 얼마나 됩니까?

셋째, 東漢에는 ‘幾’가 ‘歲’, ‘年’ 등의 준양사와 결합하는 예가 보이기 시작하며 六朝 이후부터는 ‘幾卷’, ‘幾回’와 같은 개체성 수량구가 관찰된다. 이는 吳福祥·馮勝利·黃正德(2006)에서 兩漢 시기 “수사+개체 양사+명사”형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과 흐름이 같다.

東漢

(21) 家人子弟, 學問曆幾歲, 人問之曰: “居宅幾年? 祖先何爲?” 『論衡·第十二卷』
집안의 아이가 책을 읽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집에 산 지 몇 년이나 되었느냐? 조상들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었다.

六朝

(22) 先生既窮觀墳典, 又兼綜奇秘, 不審道書, 凡有幾卷, 願告篇目。『抱樸子內篇·卷十九遐覽』
선생님께서서는 고대의 전적을 철저히 연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서 비법을 모두 통달할 수도 있는데, 책을 도대체 몇 권이나 가지고 있는지요? 편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唐

(23) 繡戶時雙入, 華軒日幾回。張九齡 『詠燕』
하루에도 몇 번씩 화당을 드나들며 진흙을 머금고 있었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幾’는 선진시기부터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단독으로 사용되어 약간의 수/수량을 나타냈다. 그 후 ‘幾’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다른 수사들이 양사와 결합하여 명사를 수식하게 된 것과 같이 반드시 양사와 결합한 후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4. ‘幾’의 의미와 용법

1) 수/수량을 나타내는 ‘幾’

수사는 크게 ‘二十八’, ‘一百零五’ 등과 같이 수를 나타내는 기수(基数)와¹²⁾ ‘第四’, ‘第十八’, ‘五班’ 등과 같이 순서를 세는 서수(序數)로 구분한다(呂叔湘 1982:185, 『現代漢語』 2012/1993:282,¹³⁾ 劉月華 2001:113-119, 刑福義 2016:96-97). 기수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이름만 달리하여 계수사(系數詞)와 위수사(位數詞)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으며(郭銳 2002:220), 개수사(概數詞)까지 포함하여 세 종류로 나누기도 한다(朱德熙 1958, 1982:45, 陸慶賀 2006:79). 丁聲樹(1961:168-174)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기수, 서수, 분수, 개수로 분류하였다. 학자마다 분류 범위와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幾’를 공통적으로 기수의 테두리에 넣고 있으며, 그보다 더 세부적으로는 어림수를 뜻하는 개수로 묶고 있다. 문법학계에서 보는 수사 ‘幾’의 지위를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해당 + 표시)

표7. 수사로서의 ‘幾’의 지위

서명	지은이	계수사 (系數詞)	위수사 (位數詞)	개수사 (概數詞)
『現代漢語語法講話』	丁聲樹(1961)			+
『語法講義』	朱德熙(1982)	+		
『實用現代漢語語法』	劉月華(2001)			+
『現代漢語詞類研究』	郭銳(2002)	+		
『漢語語法學』	刑福義(2006)			+

『現代漢語』(2012:282)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서 수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 없으며 뒤에 양사가 더해져 수량구의 형식으로 명사를 수식

12) 刑福義(2016:96-97)은 기수라는 명칭 대신 통수(統數)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통수 안에 기수, 배수, 분수, 개수와 같은 하위유형을 포함시켰다.

13) 『現代漢語』(2012/1993)에서는 수사를 기수와 서수로 분류하고 있으나 ‘幾’에 관한 언급은 없다.

한다. ‘三本書, 五個人, 一張紙’는 그와 같은 예가 된다. ‘幾’도 현대중국어의 전형적인 수사처럼 일반적으로 양사와 결합하여 수량구를 이루거나, 수량구의 형식으로 명사를 수식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4) 冬天我去看了她幾次。
겨울에 나는 그녀를 몇 번 보았다.
- (25) 這兒只有我們幾個人, 沒有人來打擾。
이곳에는 우리 몇 명만 있을 뿐 아무도 와서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
- (26) 他買了幾本世界文學名著, 有的他看過, 有的還來不及看。
그는 세계문학명작을 몇 권 샀는데, 어떤 책은 본 적이 있고 어떤 책은 아직 보지 못했다.

(BCC 2020.07.30.)

예(24)-(26)에서 ‘몇(幾)’는 ‘幾次(몇 번)’, ‘幾個(몇 명)’, ‘幾本(몇 권)’처럼 양사 앞에 놓여 1~10 사이의 부정량(不定量)을 나타낸다. 이렇듯 수사로 간주되는 ‘幾’는 양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幾’가 예(24)-(26)처럼 수량구의 형태로 쓰이는 것은 그것이 단위성을 가진 가산 명사 앞에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¹⁴⁾ 단위성은 대개 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에 쓸 수 있지만 ‘幾種(몇 종류)’, ‘幾句(몇 마디)’, ‘幾站(몇 정거장)’처럼 조금 추상적일지라도 양화(量化)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幾’를 사용하여 대강의 수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7) 公司解散大致以下有幾種原因。
회사가 해산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28) 他們也會講幾句這種真話。
그들도 이런 진담을 몇 마디 할 줄 안다.
- (29) 這只是她環遊世界旅途中的幾站。
이것은 그녀의 세계여행 여정 중 몇 정거장일 뿐입니다.

(CCL 2020.08.17.)

14) 김광해(1983)에서는 ‘수’와 ‘양’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각각 ‘단위성’과 ‘연속성’을 들고 있다.

이처럼 ‘幾’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次, 本, 個, 張, 杯, 件, 站’ 등의 다양한 양사를 동원하여 수량을 나타낸다. 단, 고대중국어에서는 ‘幾’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일부 그러한 흔적이 鬱達夫(1927), 沈從文(1936) 등의 현대문학 작품에 남아 있다.

- (30) 北風接著吹了幾人, 早晚的寒冷驟然增加了起來。
북풍이 몇 명을 이어서 날리더니, 아침저녁으로 추위가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했다. (鬱達夫 1927, 『微雪的早晨』)
- (31) 幾人聽著這件事, 皆大笑不已。
몇 사람이 이 일을 듣고 모두 크게 웃었다. (沈從文 1936, 『一個多情水手與一個多情婦人』)

그렇지만 현대중국어에서 ‘幾’ 뒤에 순수한 명사가 바로 붙는 예는 매우 드물다. 사실상 ‘年, 天, 夜, 分鍾, 小時, 星期’와 같은 시간성 준양사나 ‘省, 縣, 市, 村, 車間’ 같은 구역성 준양사로 한정되어 있다.¹⁵⁾

2) 의문을 나타내는 ‘幾’

의문문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원하는 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물음(問)’과 ‘대답(答)’이 하나의 문답 형식을 이룬다. 예를 들어 보자.

- (32) Q: 您住在哪裏?
A: 北京。

예(32)에서 의문대사 ‘哪裏’에 대한 대답인 ‘北京’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 의문문은 의문을 나타내는 수단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32)처럼

15) 刑福義(2002:103)은 수사 뒤에 붙어서 계산의 단위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는 ‘年, 天, 夜’ 등을 준양사라고 불렀으며, 준양사를 시간성 준양사와 구역성 준양사로 나누었다. 呂叔湘(2017:357)은 이러한 명사를 명량사 또는 준명량사라고 일컬었다. 본고는 刑福義(2002)의 용어를 받아들여 수사 뒤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명사를 준양사로 지칭하기로 한다.

의문대사 '誰', '什麼', '哪', '哪兒', '多少', '幾'를 사용하여 확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부른다.¹⁶⁾ 설명 의문문 속 의문대사는 일반적으로 의문의 초점이 되며 청자는 의문대사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답을 하게 된다. 즉, 언어적 문맥에서 의문대사는 일정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정보 가운데 특정한 정보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보도록 하자.

- (33) Q: 你去哪兒?
A: 我去圖書館。
(34) Q: 這是什麼?
A: 這是書。
(35) Q: 他是誰?
A: 他是我朋友。

예(33)에서 '哪兒'에 대한 청자의 대답은 여러 장소 중에 '圖書館'이며, 예(34)에서 '什麼'에 대한 대답은 '書'라는 특정 사물이다. 마찬가지로 예(35)에서 '誰'에 대한 대답은 '我朋友'로 문장에서 초점이 된다. 이로 보아 설명 의문문에 사용되는 의문대사는 '의문+대사(詢問+代詞)'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의문대사 '幾'를 보도록 하자.

- (36) Q: 你有幾個妹妹?
A: 我有兩個妹妹。

예(36)에서 화자는 의문대사 '幾(몇)'을 수단으로 하여 불특정한 수량적 정보를 묻고 있으며, '兩'이 화자가 알고 싶어하는 특정한 수사(數詞)성 정보이다. 특히 '幾'는 일상생활에서 날짜, 시각, 나이 등을 묻는 의문문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이런 경우 '幾'는 단순히 수량만을 나타내지 않는다.¹⁷⁾

16) 한국어에서는 의문사가 사용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부르며(김광해 1983), 중국어에서는 특지(特指)의문문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의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17) '幾' 뒤에 사용되는 '月, 號, 點, 歲'는 수사 뒤에 결합할 수 있어 준양사로 간주되지만 사전에서의 품사 규정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아래 표에서는 사전상에 양사로 규정되어 있으면

- (37) Q: 今天幾月幾號? (날짜)
 A: 今天八月二十號。
 (38) Q: 現在幾點? (시각)
 A: 現在五點。
 (39) Q: 你幾歲了? (나이)
 A: 七歲。

예(37)-(39)에서 ‘幾’는 ‘月, 號, 點, 歲’와 같은 준양사와 결합한 후 의문문으로 실현된다. 의문문에 ‘幾’가 사용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량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안에는 계산이나 순서의 과정이 함의되어 있다. 예(37A)에서 ‘八月二十號’는 ‘幾月幾號’에 대한 특정적 날짜 정보이며, 예(38A)의 ‘五點’은 ‘幾點’에 대한 시각 정보이다. 또 예(39A)에서 ‘七歲’도 ‘幾歲’에 의해 요구되는 나이 정보이다. 이처럼 ‘幾’는 의문문에서 수량에 관한 물음과 함께 대답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며, ‘대답’을 통해 특정한 정보로 대체된다.

5. ‘幾’의 품사에 관하여

1) 보편적 시각에서 본 ‘幾’의 품사

문법학계에서는 품사를 나눌 때 일반적으로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王力 1955, Whaley 1996:60-62 등).

+, 그렇지 않으면 -로 표시하였다.

사전	月	號	點	歲
『現漢』	-	+	+	+
『現規』	-	-	+	+

『現漢(第6版)』에 따르면 ‘月’를 제외하고 ‘號, 點, 歲’는 양사 용법으로 쓰일 수 있으며, 『現規』를 기준으로 보면 날짜를 말할 때 쓰는 ‘月, 號’는 양사 기능을 하지 않는다. 『現規(第2版)』(2010:523)에는 ‘箇’에 상응하는 양사 ‘號’ 용법만 실려 있다. ‘五百多號人’이 그러한 예가 된다.

그렇지만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거의 없는 언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언어학적 통념이다. 이에 따라 품사 분류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여겨졌던 형태, 의미, 기능 가운데 형태는 중국어 품사 분류에서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어법 기능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陸檢明(1994), 胡明揚(1995), 高名凱(1960), 郭銳(2002) 등이 있다.¹⁸⁾

어법 기능을 중시하는 대다수의 학자는 단어의 어법 기능을 논할 때 어법 의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와 통사는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胡明揚(1995)은 품사 문제를 다룰 때 분포적 특징, 즉 어법 기능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뿐만 아니라 구(短語) 결합 능력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郭銳(2002:129)도 단어의 어법 의미는 단어의 분포, 즉 어법 기능을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분포와 어법 의미의 관계를 “反映-表現(반영-표현)”으로 표현하였다.

郭銳(2002:113)의 경우 형태 변화가 없는 언어는 어법 기능에 의해 품사를 구분해야 하며 형태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어법 기능을 품사 분류의 기준 가운데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 그는 胡明揚(1995)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어법 기능을 구체적 분포와 개괄적 분포로 나누었다.

- i) 구체적 분포: 다른 단어나 구와 결합하는 능력
- ii) 개괄적 분포: 문장 성분이 되는 능력

郭銳(2002:125)에 따르면 중국어의 품사를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구체적 분포와 개괄적 분포를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단, 개괄적 분포의 경우 품사를 가르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에 가능하면 구체적인 분포를 최대한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분포’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幾’를 수사와 의문대사, 이른바 겹품사로

18) 高名凱(2011/1960:157, 181) 같은 경우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어법 의미와 어법 기능에 근거하여 품사를 나누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실사는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품사의 기능을 하면서 어느 하나의 품사 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내세워 “漢語無詞類(중국어는 품사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다른 학자와 다르다.

설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幾’의 어법 의미는 수/수량이며 양사와의 결속도가 상당히 높다. ‘幾’는 ‘幾+양사+명사’ 혹은 ‘幾+양사’의 수량구를 만드는 데, 이것은 ‘幾’의 수사성에 기인한 통사 형식으로서 구체적 분포에 해당한다.

‘幾’의 개괄적 분포 양상은 평서문과 의문문의 두 가지 환경으로 나눈 후 그 안에서 ‘幾’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는 특정한 정보 또는 구정보이다. 그런데 ‘幾+양사+명사’가 나타내는 것은 어림수로서 불특정 정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어 자리에 ‘幾+양사+명사’가 오게 되면 제약이 따른다.¹⁹⁾

주어

- (40) a. 這幾本書似乎是十分枯燥無味。
이 몇 권의 책은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다.
- b. 有幾個人想喝咖啡?
몇 사람이나 커피를 마시고 싶죠?
- c. 大約幾個人去?
대략 몇 명이 가나요?

‘幾+양사+명사’가 주어가 될 때는 예(40a)처럼 지시대사 ‘這’를 그 앞에 써서 의미를 한정하거나 예(40b)와 같이 주제화 표지 ‘有’를 첨가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예(40c)처럼 부사어를 써서 상황을 어느 정도 한정하는 용례도 있기는 하지만 흔한 것은 아니다.

‘幾’가 목적어가 될 때도 ‘幾+양사+명사’의 수량구를 이룬다.

목적어

- (41) a. 她手裏拿著幾本書, 好象是剛從過道裏走出來似的。
그녀가 손에 몇 권의 책을 들고 있는 것이 방금 통로에서 나온 것 같다.
- b. 雞一共有幾只腳?
닭은 모두 몇 개의 발이 있죠?

19) 예(40)-(44)는 BCC 말뭉치를 통해 수집하였다(2020.08.30.)

‘幾’는 예(42)처럼 ‘幾+양사+(명사)’가 ‘的’를 취한 후 관형어로서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관형어

- (42) a. 我還記得其中幾本書的名字。
나는 그 몇 권의 책 이름을 아직 기억한다.
- b. 老師, 你有幾年的劍道經驗?
선생님, 검도 경험이 몇 년이나 되시나요?

‘幾’는 ‘幾+준양사’형식으로 쓰여 부사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준양사는 ‘點’처럼 시간성을 가진 것이 많다. 예(43a)에서 ‘幾點’은 내포문 속 부사어가 되고, 예(43b)에서 ‘幾點’은 일반적인 부사어로 쓰인 예이다.

부사어

- (43) a. 我不太清楚她幾點出去。
저는 그가 몇 시에 나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 b. 她幾點出去的?
그녀는 몇 시에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幾’는 예(44)처럼 ‘幾+양사’의 수량구 형식으로 보어가 되기도 한다.

보어

- (44) a. 我也勸過他幾次。
나도 그에게 몇 번을 권했었다.
- b. 你去過幾次?
당신은 몇 번 가봤어요?

이상 어림수를 나타내는 ‘幾’와 수량 및 의문 등을 나타내는 ‘幾’를 각각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분리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幾’는 사용 환경과는 무관하게 ‘幾+양사+명사’ 혹은 ‘幾+양사’의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幾+양사+명사’는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가 될 수 있었으며, ‘幾+양사’의 형식으로 보어가 될

수도 있었다. 이로써 구체적 분포뿐만 아니라 개괄적 분포로는 '幾'가 겹품사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확대하여 '幾'의 품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다각적 시각에서 본 '幾'의 품사

'幾'가 분포 측면에서 수사의 품사 특징을 보였다면, 중국문법학계에서 '幾'를 의문대사로 받아들인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그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幾'의 화용 기능이 그것을 의문대사로 볼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文棟·胡附(2000), 刑福義(2002), 衫村博文(2002), 胡明揚(1995) 등 다수의 학자가 품사 분류, 겹품사 또는 대사에 관한 논의에서 화용적 요소를 반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胡明揚(1995)은 대사는 일정한 언어환경에서 대체, 지칭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刑福義(2002:108, 112)는 대사는 어법 특징에 근거하여 분류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대사의 활용은 특정한 화용적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幾' 역시 화용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예 (40b)-(44b)에서 '幾'는 의문문에서 의문과 대답의 상호작용 등에 개입함으로써 전형적인 의문대사로서 기능함을 보였다. 이는 (40a)-(44a)에서 '幾'가 사물/사람의 대략적인 수량만을 나타내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즉, 의문문에 사용되는 '幾'는 외형적으로는 수사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의문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의문문에 사용된 '幾'와 그 외의 환경에서 사용된 '幾'를 일괄적으로 수사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幾'가 문장에서 단지 어림수를 나타낸다면 수사 '幾'일 가능성이 크지만 의문문에 사용되어 수량 의미 외에 의문과 관련된 다기능적인 면모를 보인다면 의문대사 '幾'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丁聲樹(2009/1961:162), 劉月華(2001:103-106), 石毓智(2001:80-82), 刑福義(2002:113), 陸慶和(2006:68) 등 여러 학자에 의해 임의지칭,

가상지칭과 같은 의문대사의 비의문 용법이 언급된 바 있다.²⁰⁾ 이중 刑福義 (2002:112)는 본래의 지칭 기능에서 벗어난 의문대사의 비의문 용법을 대사의 활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什麼, 誰, 怎麼’는 비의문 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의문대사로,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5) 只要認真學, 什麼都能學會。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 (46) 這件事誰也不知道。
이 일은 아무도 모른다.
- (47) 不知道怎麼一來就滑倒了。
어째서 미끄러져 넘어졌는지 모르겠다.

(『現代漢語(第6版)』2012)

예(45)-(46)에서 ‘什麼’와 ‘誰’는 각각 ‘都, 也’와 호응하여 불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며, 예(47)에서 ‘怎麼’는 방식을 가상지칭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幾’의 경우에도 의문대사로부터 발전한 비의문 용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幾’가 의문대사의 범주에 속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幾’가 비의문 용법으로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 (48) 咱們不等了, 來幾個人算幾個人。
우리는 안 기다릴 거예요. 오는 대로 하지요.
- (49) 他們幾個一起去了北京了。
그들 몇 명은 함께 북경에 갔다.

(嶽海燕 2017)

예(48)에서 ‘幾個人’은 쌍을 이루어 불특정 대상을 강조하는 임의지칭으로, 문장 안에서 대체로 也나 都와 호응을 이룰 때가 많다. 예(49)에서 ‘幾個’는 지칭할 수 없거나 지칭할 필요가 없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상지칭한 것이다. ‘幾’의 가상지

20) 『現代漢語』(2007:320-321)의 한국어 번역에 따라 ‘任指’는 임의지칭, ‘虛指’는 가상지칭으로 쓰도록 한다.

칭 용법은 고대중국어에서는 없었으나 근대중국어에 와서 의문대사의 가상지칭 용법이 생겨난 후 ‘幾’로까지 확대되었다(呂叔湘 2017:359). 이 같은 ‘幾’의 비의문 용법은 ‘什麼, 誰, 怎麼’ 등이 의문대사의 범주로 묶이면서도 문법화를 거쳐 의문대사의 고유한 기능을 벗어나는 현상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셋째, 『現代漢語』(2012/1993:284), 劉月華(2001:91), 刑福義(2002:112) 등은 ‘幾’를 수/수량을 묻는 대사로 보았다. 또, 郭鏡(2002:239)는 실사로부터 임시지칭 기능을 가진 단어를 추출하여 만들어진 특수한 부류를 대사로 보고 ‘幾’를 수사성 대사로 하위분류하였다. 刑福義(2002:107), 郭鏡(2002:239) 등 여러 학자의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대사는 명사성, 동사성, 형용사성, 부사성 등 다양한 품사적인 특성을 가진 특수한 부류이다. 의문대사의 경우 장소를 묻는 ‘哪兒’, 사물을 묻는 ‘什麼’, 사람을 묻는 ‘誰’, 방식이나 원인 등을 묻는 ‘怎麼’ 등의 하위유형으로 구분되듯이 중국어 품사에서 대사가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지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과 관련시키면 ‘幾’는 수/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성 의문대사로 판단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몇 안 되는 불특정한 수’ 또는 ‘대강의 수’를 나타내는 ‘幾’가 의문의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의문대사의 영역으로 유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CCL 말뭉치 고대중국어 자료를 보면, 상고중국어에서 ‘幾’가 사용된 의문문의 수는 戰國 시기를 거쳐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가 폭이 차츰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근대중국어에 이르러 셀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문대사 ‘幾’의 증가추세로 보면 불특정한 수를 나타내는 ‘幾’가 의문의 문맥에서 의문 “문맥 의미 흡수”(“absorption of contextual meaning”, Bybee et al. 1994:282)를 통하여 그 의미와 기능을 확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과 주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²¹⁾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는 ‘幾’의 의미 기능이 발전한 방향을 의미하며, 오른쪽으로 향하는

21) 중국어 원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사는 ‘指代’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데, ‘指代’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 지시, 대체, 조응 등과 같은 의미로 통한다. 본고에서는 ‘幾’가 의문문에 사용될 때 ‘대체’라는 용어가 그 기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보고 이 용어를 선택하였다.

화살표는 품사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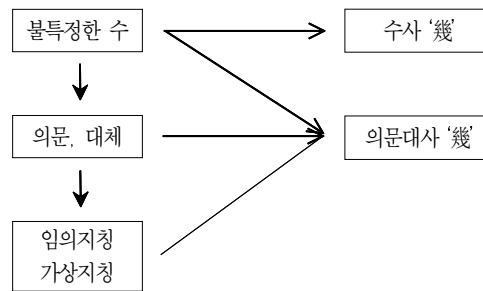


그림1. '幾'의 의미 기능과 수사 '幾', 의문대사 '幾' 간 관계

6. 나오며

초급중국어 교재에 출현하는 대부분의 '幾'는 의문대사 '什麼', '誰', '哪兒'과 비슷한 시기에 학습하며 문미에 의문어조사 '嗎'를 수반하지 않고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초급중국어 교재, 중국어사전 및 중국어문법서에서 '幾'의 품사는 수사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의문대사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며, '幾'를 수사와 의문대사를 겸하는 겹품사로 보는 견해도 일부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국어학계 전반에 걸쳐 '幾'의 품사 분류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幾'의 품사 분류에 대해서는 중국어문법서들에서 매우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문조차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幾'의 품사 규정에 대한 혼란과 이견을 진지하게 포착하고, '幾'의 품사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그렇게 규정하는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한 연구가 국내외 중국어학계에 거의 없었다. 본고는 '幾'의 품사에 관한 중국어학계의 인식을 초급중국어 교재, 사전 및 중국어문법서를 통해 폭 넓게 검토·분석하고,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幾'에 관한 고찰을 병행함으로써 그것이 겹품사라는 결론을 얻었다.

품사 분류의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어법 의미 및 기능에 의하면 ‘幾’는 전형적인 수사에 부합하는 단어이다. 『現漢(第6版)』(2012)이 출간되기 전까지 사전학계에서 ‘幾’를 수사로 보는 관점이 월등히 우세했던 것은 ‘幾’의 이런 어법 의미와 기능을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관점에 의한 것이다. 말뭉치 자료를 보더라도 ‘幾’는 고대 중국어에서 현대중국어에 이르기까지 줄곧 수사적 어법 분포를 보임으로써 수사성이 부각되어 왔다. 단, 고대중국어에서 ‘幾’는 면적/크기, 가치, 수량, 시량 등 다양한 종류의 양을 나타냈으나 수량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체성 양사를 취하여 구체적인 수량만 나타낼 수 있게 어법 의미가 축소되었고, ‘多大’, ‘多久’, ‘多少’ 등의 새로운 단어가 창출되면서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들 사이에 기능 분화가 일어났다.

한편 중국문법학계에서는 ‘幾’를 의문대사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상술한 품사 분류의 일반적인 시각, 즉 ‘幾’의 수사적 어법 분포로는 ‘幾’의 품사가 의문대사임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본고는 형태, 의미, 통사와 같은 품사 분류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더 나아가 ‘幾’의 화용 기능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 ‘幾’를 수사뿐만 아니라 의문대사의 품사 범주로 귀속시킬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幾’의 의미 기능이 ‘문맥 의미 흡수’ 기제에 의해 “불특정한 수 → 의문, 대체 → 임의지칭, 가상지칭”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의문문에 ‘幾’가 자주 사용되는 상황에서 의문의 문맥 의미를 흡수하게 되었고, 이로써 ‘幾’가 의문대사의 품사 범주에 서서히 가까워진 것이다. 본고에서 그림1을 통해 제시한 이 내용은 불분명했던 수사 ‘幾’의 의미 기능 간 관계, ‘幾’의 의미 기능과 ‘幾’의 품사 간 관계, 수사 ‘幾’와 의문대사 ‘幾’ 간 관계를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본고가 ‘幾’를 수사 외에 의문대사로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문문에 사용되는 ‘幾’는 의문의 형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적은 수’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물음과 대답, 대체에 이르기까지 의문과 관련된 다기능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幾’는 단순히 어림수만을 나타내는 수사 ‘幾’와

는 독립된 다른 품사, 즉 의문대사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의문대사는 장소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哪兒', 사물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什麼', 사람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誰' 등 다양한 하위유형을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幾'는 의문문에서 '수량'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므로 '수사성 의문대사'로 지칭할 수 있다. 게다가 '幾'는 임의지칭, 가상지칭과 같은 비의문 용법으로 확대되어 쓰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의문대사가 의문대사로 귀속되면서도 본유의 기능을 벗어나게 된 것과 매우 비슷하다.

셋째, '幾'는 상고중국어부터 수사와 동일한 어법 분포를 보였고 기본적으로 어림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幾'의 품사는 수사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고중국어부터 '幾'는 의문의 문맥에서 자주 출현하며 소위 의문대사의 역할을 지속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幾'의 품사를 수사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의문대사로 함께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幾'는 수사뿐만 아니라 의문대사를 겸하는 겹품사임이 확실하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어학계에서 수사 '幾'와 의문대사 '幾'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며, '幾'의 기능에 관한 관점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실제 중국어교육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김광해, 「국어의 의문문에 대한 연구」, 『국어학』 제12집, 1983.
 김양진, 「'몇'의 의미와 '몇'계 복합어」, 『국어학』 제14집, 2009.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教研室(김애영 외 3인 옮김), 『現代漢語』, 차이나하우스, 2007 (1993).
 李佐豐(신원철 외 2인 옮김), 『고대중국어 어법론』, 역락, 2018.
 Li & Thompson(박정구 외 4인 옮김), 『표준중국어문법』, 한울, 1996(1981).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教研室, 『現代漢語(增訂本)』, 商務印書館, 2012(1993).
 丁聲樹,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1961(2009).

- 董秀芳, 『詞彙化: 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 商務印書館, 2011.
- 高名凱, 『語法理論』, 商務印書館, 1960(2011).
- 顧建平, 『漢字圖解字典』, 東方出版中心, 2011.
- 郭 銳, 『現代漢語詞類研究』, 商務印書館, 2002.
- 李行健, 『現代漢語規範詞典(第3版)』,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10.
- 劉月華,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1.
- 陸儉明, 「關於詞的兼類問題」, 『中國語文』第1期, 1994.
- 陸慶和, 『實用對外漢語教學語法』, 北京大學出版社, 2006.
- 呂叔湘, 『漢語語法分析問題』, 商務印書館, 1979.
-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1982.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商務印書館, 1980(1999).
- 呂叔湘, 『近代漢語指代詞』, 商務印書館, 2017.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4)』, 檀國大學校出版社, 2001.
- 杉村博文, 「論現代漢語特指疑問判斷句」, 『中國語文』第01期, 2002.
- 王 力, 『中國現代語法』, 中華書局, 1943(2014).
- 王 力, 「關於漢語有無詞類的問題」, 『北京大學學報』第02期, 1955.
- 王 力,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0.
- 文 煉·胡 附, 「詞類劃分中的幾個問題」, 『中國語文』第4期, 2000.
- 吳福祥·馮勝利·黃正德, 「漢語“數+量+名”格式的來源」, 『中國語文』第5期, 2006.
- 刑福義, 『漢語語法三百問』, 商務印書館, 2002.
- 刑福義, 『漢語語法學』, 商務印書館, 2016.
- 於 楊·沙志軍, 『新編古漢語詞典』, 人民日報出版社, 1996.
- 嶽海燕, 「關於“幾(ji)”的詞性」, 『辭書研究』第6期, 2017.
- 張 斌, 『新編現代漢語』, 復旦大學出版社, 2008.
- 張雙棣·陳濤, 『古代漢語字典』, 北京大學出版社, 1998.
- 趙元任, 『中國話的文法(中文版)』, 中文大學出版社, 1980.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現代漢語詞典(第5版)』, 商務印書館, 2005.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現代漢語詞典(第6版)』, 商務印書館, 2012.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
- Bybee et al.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Whaley, Lindsay J. *Introduction to Typology(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Sage Publications, 1996.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CCL語料庫搜索系統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北京語言大學智能研究院BCC語料庫系統 <http://bcc.blcu.edu.cn/>

초급중국어 교재

김현철·김은희, 『스마트 중국어1』, 중국어뱅크, 2010.

김태순·안영희 외, 『집중중국어1』, 동양북스, 2018.

毛海燕·심소희 외 2인, 『THE 중국어1』, 동양북스, 2013.

박정구·백은희, 『중국어 마스터1』, 다락원, 2008.

이강재 외 2인, 『중국어의 신1』, 동양북스, 2019.

정운철 외 2인, 『NEW 스타일 중국어1』, 동양북스, 2013.

崔永華(임대근 옮김), 『신개념 중국어1』, 다락원, 2016.

康玉華·來思平(최용철 옮김), 『301구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상)』, 다락원, 1999.

馬箭飛 외 2인(변형우·강필임 옮김), 『신공략 중국어(기초편)』, 다락원, 2000.

〈Abstract〉

Is ‘幾(jǐ)’ an Interrogative Pronoun or a Numeral?

Ko, Young-Ran / Park, Eun-Sok

Throughout the Chinese academia, 幾(jǐ)’s word-class has been recognized as a numeral or an interrogative pronoun, and some scholars view it as both a numeral and an interrogative pronoun both. However, no valid rationale for defining 幾(jǐ)’s word-class as such has been presented. We reviewed the situation of 幾(jǐ)’s word-class notation extensively through Chinese dictionaries, Chinese grammar books, and beginner’s Chinese textbooks and considered the use of ‘幾(jǐ)’ from a historical and synchronic perspective. In this way, we concluded that ‘幾(jǐ)’ is a concurrent word. In addition, we prepared grounds for claiming ‘幾(jǐ)’ as a concurrent word, and also uncovered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eanings of the numerals ‘幾(jǐ)’,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s of ‘幾(jǐ)’, and the word-class of ‘幾(jǐ)’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erals ‘幾(jǐ)’ and the interrogative pronouns ‘幾(jǐ)’ for the first time.

‘幾(jǐ)’ belongs to the word-class of numeral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but the reasons that it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an interrogative pronoun are as follows. First, if ‘幾(jǐ)’ is used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it shows a multifunctional aspect related to the interrogative such as question, answer, and substitution. Second, ‘幾(jǐ)’ is not only used as an interrogative usage, but also used as a non-interrogative usage such as arbitrary reference and empty reference. This shows the same pattern as the development of other interrogative pronouns. Third, ‘幾(jǐ)’ has been frequently used in the context of interrogative since Archaic Chinese, so it eventually has become closer to an interrogative pronoun through interrogative “absorption of context meaning”.

Key words: ‘幾(jǐ)’, numeral, interrogative pronoun, round number, absorption of context meaning

이 논문은 2020년 10월 9일에 접수되어 2020년 10월 3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